

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260.05 (+40.46)		824.82 (+6.22)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2.425 (-0.023)		1388.90 (-1.70)

소비쿠폰으로 내수 활성화 불씨, 美 통상압력 방어 성과

 **이재명 정부 100일**

2차 추경편성, 내수진작
소비쿠폰 8.9조 지급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 6.4% ↑
“산업재해 안줄면 직 걸라”
산재·임금체불 근절 강조

이재명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 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제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 (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

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정은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 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봇택시, 그리고 중소계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플랫폼 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현대차·기아, 유럽서 ‘소형 전기차’ 드라이브

獨 ‘IAA 모빌리티 2025’ 참가
아이오닉 콘셉트카 최초 공개

수입차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미국발 약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유럽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중이며 현대차·기아가 상반기 10만대를 판매하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만대 판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전기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이날 공개한 ‘콘셉트 쓰리’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EV 콘셉트카로,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는 2019년 준중형 EV 콘셉트카 ‘45’, 2020년 중형 EV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2021년 대형 EV 콘셉트카 ‘세븐(SEVEN)’ 등을 공개한 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를 차례로 출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준중형, 중형, 대형 차급으로 이어지

는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왔다.

이번 콘셉트 쓰리는 차별화된 소형 EV를 통해 아이오닉 라인업을 소형 차급까지 확장하겠다는 현대차의 비전을 담은 모델이다. ‘콘셉트 쓰리’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으며, 소형 EV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콘셉트 쓰리는 소재가 지닌 아름다움을 강조한 실내 디자인을 통해 탑승자가 신체적·정서적 편안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우선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은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

면서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해 가구처럼 안락한 느낌을 구현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해치백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큰 유럽 시장에서 이번 콘셉트카를 최초 공개함으로써 아이오닉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준중형 전기차 EV4 판매에 집중하고, 내년엔 콤팩트 전기 SUV EV2를 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에 출시하는 소형 전기차 신차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등 현지 공략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바이오, 1.8조 초대형 계약

美 제약사와 CMO 계약 체결
올해 누적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다시 2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따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월 29일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8001억원 규모의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간 매출의 40%에 달한다. 계약 상대, 제품명 등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들어 기록한 누적 수주 금액은 총 5조24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5조4035억원의 97%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만 초대형 수주를 두 건 올린 성과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유럽 제약사와 2조747억원의 계약을 맺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 등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이 이어졌고 현재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시장 환경과 사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 계약을 통해 기업 영향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ake236@

메트로 한줄뉴스

- ▲李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 ▲李대통령,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 지명



- ▲국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권성동, 李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사진 뉴시스

-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도 언급
- ▲中서 열린 北 9·9절 행사에 전인대 부위원장 2년 만에 참석

금감원, 19개 금융사 CEO 소집… “소비자 보호” 최우선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강화 논의
홍콩 ELS 사태 거론 경영진 역할 강조
CCO 독립성 확보 등 모범관행 제시

금융감독원이 9일 은행·보험·여신전 문금융업·증권 등 19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했다. 홍콩 ELS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한계를 계기로 금감원은 이사회와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권한 확대,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금융지주 책임 강화 등을 담은 ‘모범관행’을 공개하며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지선 부원장보 등 금감원 수뇌부와 업권별 CEO 19명이 참석했다. 취임 직후 업권별 간담회와는 달리 소비자보호를 단일 의제로 CEO 전원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 한 번의 금융사고만으로도 신뢰는 무너진다”며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강



이찬진 금감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화돼야 리스크 관리와 기업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이 이날 제시한 모범관행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단기 실적에 얽매지 않는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한 KPI 개편, 금융지주의 그룹 차원 관리·감독 강

화가 담겼다.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전략을 별도 안건으로 다루고, 내부통제·상품심사·민원심의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이사 영입이나 소위원회 설치도 권고된다.

실태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주요 75개사 중 40% 이상이 성과보상체계 등 핵심 안건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위원회가 서면 개최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CCO의 위상

은 조직 내 평균 서열 64% 수준에 불과했고, 임기도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담인력 역시 회사별 평균 10명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민원·분쟁은 2022년 8만7000건에서 지난해 11만6000건으로 30% 가까이 늘며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KPI 개편 시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에 사전협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의 가중치를 높인다.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형식적 운영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CEO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사 경영체계를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금감원도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개선을 이끌고,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민원·분쟁,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정훈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내년 3월10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고용장관 “6개월 간 준비 거쳐
지침과 매뉴얼 정교하게 마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삼성바이오 1.8조…’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최대 생산시설 확보
의약품 수요 선제대응 성과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업용 설비 78만 리터와 임상용 설비 4000 리터 등 총 78만 4000리터의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이면서 제2바이오캠퍼스의 첫 번째 공장이다.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에는 6~8공장이 세워진다. 5공장은 기존 1~4공장의 최적 운영 사례를 집약해 18만 리터 규모로 구축됐다. 또 유연 설비 설계를 적용해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하며 새로운 첨단 기술을 능동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생산 역량과 기술력뿐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췄다. 5공장의 경우, 제조 실행 시스템(MES) 등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고도화했다.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며 자율주행 운송 로봇, 자동화 창고, 화학물질 자동 공급 체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9월 기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 획득한 제조 승인은 총 382건이고 각 규제 기관의 심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GDDR7 공급량 두배 확대

엔비디아, 中 H20 출하 불확실

삼성, 설비확보·GDDR7 생산 확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망 내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GDDR7은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이지만 인공지능(AI) 가속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만큼 성능이 높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 협력 구도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GDDR7 주문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정학적 압력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저사양 인공지능 칩 ‘H20’ 출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신규 칩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의 GDDR7 D램. /삼성전자

에 맞춰 GDDR7 생산을 확대하고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부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그간 게이밍 제품에만 GDDR7을 사용해 왔는데 최근 서버용 ‘RTX프로 6000블랙웰 서버 에디션’으로 응용처를 확장했다. 서버 구입·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품군을 다각화하려는 방침이다.

또한 엔비디아의 AI GPU는 가격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했으나 B40 AI GPU에는 삼성전자의 GDDR7이 적용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미국의 對중국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초당 1.8TB(테라바이트)로 제한된 미국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HBM 대신 GDDR7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GDDR7은 HBM 대비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뚜렷하다. HBM이 1GB당 130~170달러 수준인데 비해 GDDR7은 5~8달러 가량이다.

미국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DR7의 수요를 올해 200만대, 내년 500만대로 진단했다. 중국 고객들이 최근 HBM이 없고 GDDR7을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B40 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B40이 100만대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매출 이익은 3억8400만달러(약 5340억원)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라 올해 B40의 수요가 200만대로 상향된다면 삼성전자의 수혜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그래픽 D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도 그래픽 D램을 공급받고 있으나 가장 많은 물량은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GDDR7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 향후 HBM 납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을 위한 HBM 4 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사와의 계약 건은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다만 업계에서는 그래픽카드 수요 증가와 AI 확산에 따라 GDDR7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증설 요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 정부, 칼 빼들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신속 원인파악, 피해확산 방지 최선”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가 경기 광명에 이어 서울 금천·영등포, 경기 부천으로 확산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

상 파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오후 7시16분께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당일 저녁 7시50분경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회사를 방문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술적·정책적 조안을 구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현정 기자 hjk1@



KT 소액 결제 피해가 광명에서 금천·영등포·부천으로 번지자, 과기정통부가 9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구글 제미니로 생성한 이미지

금융당국 개편안 후폭풍

9000개 이상 법조문 수정 필요… 금융정책 차질 불가피

여야 대립 여전… 법안 처리 불투명
패스트트랙 지정시 최장 330일 소요
근무지 문제 등 인재 이탈 가능성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스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

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진 사행명 상황이나 재정부책임, 이진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기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 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지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전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섀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감독기구 해체 수준 조치”… 금감원 노조, 파업 논의 나선다

내부 반발 거세… 소통부족 등 지적
“감독 기능 분리는 총돌·공백 초래”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감독기구를 사실상 양분하고 정책 종속성을 구조화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원들은 “감독기구 해체” 수준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는 직원 600~700여 명이 검은 복장을 갖춰 입고 '상복 시위'를 벌였다. 사전 참석을 밝힌 인원은 499명이었지만, 현장에는 시간이 흐르며 인파가 더 몰렸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 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

능 분리는 총돌과 공백만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이건 단지 노동조건 문제를 떠나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선임 직

원은 “우리에게 불리해서가 아니라,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방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은 내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한 조사업역은 “전날 이찬진 원장

의 전체 메일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며 “외부 금융사 CEO들은 만나면서 정작 내부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로비 시위 현장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8일) 오후 4시 30분 열린 긴급 직원 간담회(설명회)에서도 격양된 분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감원 강당은 400여 석이 가득 찼 정도로 붐볐고, 일부 직원들은 간담회 내내 탄식을 쏟아냈다. 이세훈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에 집중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직원 반응은 싸늘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이 가져올

후폭풍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금소원 분리로 인해 고용 재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3년차 직원은 “금감원을 보고 입사했는데 금소원으로 발령 나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직 분위기가 자체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탐장급 직원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워낙 조직개편이 큰 이슈다보니 젊은 조사업역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노조는 단체행동수위를 조정 중이며, 향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섭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현재는 긴급 상황에 대응한 로비 집회”라며 “총파업 여부는 절차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경제 8단체 “‘배임죄·자사주 제도·경제형벌’ 입법 보완 필요”

민주당 간담회… 기업부담 완화 촉구

경제 8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또 여러 가지 보완 입법,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은 법무부 주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한꺼번에 개정돼 해석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배임죄 ▲자사주 제도 ▲경제 형벌 세 가지 분야에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특수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기준이 20년 넘게 손질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화 시스템과 기존 보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예외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기업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경제 형벌과 관련해서도 법률과 형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 ‘이토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장기적 제도 개편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10여 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단계적·지속적 개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지목돼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거론하며 책임 있는 이사회 전환,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 도입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이는 민생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배임죄는 법무부가 경영판단 원칙과 행위 유형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자사주 제도는 9~10월 의견 수렴 후 11월부터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형벌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글로벌 거점재편·인재확보... ‘반도체’ 미래 동력 쌓는다

산업의 최전선

SAMSUNG

수출 드라이브 기조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온 K-산업계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중국의 첨예한 통상 갈등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변화 및 국내외 자본시장 혼란 등으로 미증유의 혼돈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내 주력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기지를 옮기고 신기술 확보에 나서며 국경을 넘나드는 합종연횡을 시도하는 등 K-산업계는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전환기의 핵심동력, 기업이 움직인다’를 주제로 특별 기획을 진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가전, 석유화학 및 정밀소재, 방위산업, 철강금속,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업종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분석해본다.

근래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 산업은 미·중 패권국의 통상 갈등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달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AI패권’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K-반도체의 간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산 거점 확장에 나선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변화를 조명한다.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리더십 강화

삼성전자에서 DS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60%를 견인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즉 반도체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최근 경쟁사의 추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해 15조1000억원의 영업이익

익을 기록하며 경쟁사 S

K 하이닉스 (23조

4673억원)에 역전을

을 허용했다. D램

메모리 분야에선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며 33년 만에

글로벌 왕좌에서 내려

왔다. 또 파운드리 분야

의 경우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1

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

고 3위인 중국 SMIC와의 점유율 차이는 좁

혀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AI시대에 맞춰 반도체 사업 전략에 일대 변화를 주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D램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기술 리더십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낸드플래시에 집중했던 투자를 D램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는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D램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D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 4공장(P4)의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일부를 D램인 DDR5 등 고성능, 고용량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HBM4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

미국 테일러·시안 등 생산거점 다변화
유럽·인도 진출 모색 등 공급망 다극화
테슬라·애플 수주 확보, 고객 기반 강화
HBM·파운드리 투자 확대, 기술 초격차

국내외 기술인재 영입, 채용 규모 확대
기흥·평택 연구시설 확충, 투자 본격화
과격 연봉 제시 통한 글로벌 인재 선점
‘첫째도 기술’ 기조 기반, 성장 토대 구축

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 4에 탑재될 1c(6세대 10나노급) D램 생산능력을 올해 월 6만장까지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집행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서버용 64GB(기가바이트) DDR5의 올 4분기 가격 전망치를 당초 255달러에서 27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모바일 8GB DDR5도 18.7달러에서 19.2달러, PC 16GB DDR5는 44.7달러에서 46.5달러로 높였다.

파운드리 분야는 초미세 공정 및 에코시스템 강화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첨단 공정 기술과 고객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며,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 한다. 다만 최근 무리한 개발보다는 2나노와 4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에 주력하는 등 생산효율화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재준 DS부문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HBM3E와 HBM4 등 AI 고부가 메모리 출하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AI 서버용 LPDDR5x, DDR5 128GB 이상 고용량 제품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HBM4는 이미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 중이며,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사 확보·생산거점 변화

삼성전자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통한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팹리스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최근 테슬라와 애플 등 개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파운드리 부문에서 테슬라와 165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테슬라가 설계한 인공지능(AI) 칩을 미국 삼성 테일러 팹에서 만들어 8년 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애플과 차세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속도를 높이는 등 생산거점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테슬라 수주를 기점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장비 투자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달부터 인력을 과전해 테일러 공장(팹)에 파운드리 라인 구축에 돌입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엔지니어들을 투입한다. 파운드리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도 발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가동에 발맞춰 미국 내 빅테크 유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테일러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등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해외 생산 거점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공장 이외에도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시스템 LSI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을 테일러 공장과 연계해 미국 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국 시안 공장에서는 낸드플래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낸드플래시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고 노후 장비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럽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은 EU 반도체 법을 통해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내 생산거점 확보는 단순히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차원을 넘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유럽 산업 특화 분야와의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가 유럽 내 생산능력을 확보할 경우, 단순 파운드리 사업을 넘어 완성차, 에너지,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도 역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가 아시아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극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노미정 상무는 “테슬라와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인 테일러 팹 가동 확대와 투자 증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미국 테일러 신규 팹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될 예정이며 올해 대비

내년 캐팩스 규모가

더욱 증가될 것”이

라고 밝혔다. 이

어 “미국 내 다양

한 고객들의 추

가 수주가 기대

되며 매출 및 손익

확대가 가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등용 변화의 바람

이재용 회장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을 강조하며 ‘특급 인재’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왔다. 국적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경영 기조에 맞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AI 메모리 초격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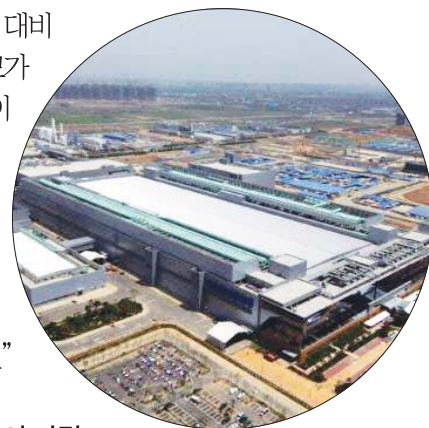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고급 기술직의 경우 연봉이 최대 2억5000만원에 달하며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에는 신기술 공정개발(TD) 및 로직 공정 통합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직 채용에 나섰다. 해당 직무는 반도체 양산 초기 수율 확보, 불량 비율 관리, 장비 조건 검증 등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 분석과 개선 작업을 주도하는 자리로, 단순한 생산직과는 차별화된 고급 기술 역량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투자와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연구용 팹 3기와 14만평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동을 건립 중이며 평택캠퍼스에는 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 등 수주 확대에 앞서 생산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현지 공장 운영과 고객 대응 체계가 확대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가 투자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왼쪽 사진 왼쪽)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왼쪽 사진 오른쪽)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정 경쟁, 유통구조 개혁, 서민대출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노조 자녀 우선 채용권 의혹’ 지적
노동자 측 과도한 주장 자제 당부

OECD比 식료품 물가 약 50% 높아
양극화·불평등 심화… 대책 필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
“너무 잔인… 근본적인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들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햇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 게 더 비싼 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걸”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일 텐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는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란청산·3대개혁·李 정부 성장정책 지원”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 중 ‘내란 26번·협치 0번’ 언급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가짜뉴스 추방 AI, K-콘텐츠 등 지원체계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모두 26번 얘기했지만 ‘협치’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성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



◆“개혁은 타이밍… 검찰청 폐지”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참대추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ABCDEF 산업 육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

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 AI 기술개발을 돕겠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두고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태홍 기자 pth728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LH 부채부담 키우고 민간시장 위축 우려”

野 9·7 부동산 대책 긴급토론회

단기적 처방·강남3구 공급대책 전무
수요 억제책 중심 실패정책 연속 우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감동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부동산시장안전화대응TF(테스크포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집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같이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

되려면 5~10년인데,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단기적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급책도 문제다.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은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LH의 부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규제 지역에 공급 촉진 제도 개혁이 보이지 않고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정하는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연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에서 “기존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매·임대사업자대출을 활용하던 수요가 있었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이러한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태홍 기자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이예원
Yewon LEE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이익 줄고 연체율 10년래 최대… 2금융권, 건전성 ‘경고등’

금감원,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
순익 1.2조… 전년대비 2739억 ↓

연체율 0.11%p 늘어난 1.76%
고정이하여신비율 1.30%로 상승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 금융의 수익은 줄고, 연체는 증가해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 1.76%로, 전년 말과 비교하면 0.11%p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 상승폭이 0.16%p로 가장 컸다. 이어 카드채권 연체율이 0.12%p,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0.10%p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0%로 같은 기간 0.14%p 상승했다.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3%로 전년 말 대비 1.8%p 하락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순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반기 기준,



연체율 상승 등으로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은행권 대출 창구 앞 모습. /뉴스시

2024년을 제외하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 202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사 순이익은 2022년 1조6243억원에서 2023년 1조4168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상반기에는 1조4990억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2739억원으로 급감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올 6월까지 1.21%→1.63%→1.65%→1.76%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0.85%→1.14%→1.16%→1.30%로 상승했

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부실 가능성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곧 여신회사의 부실 채권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순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순이익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기조가 장기화되면 여신전문사들의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연체율 상승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져,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2금융권 전반에 건전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

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23곳의 지점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건전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이다. 경기도 3조 8000억원, 서울이 2조 8532억원, 대구가 1조 2981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8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3조4943억원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경기도 4조1042억원, 경남이 2조 4159억원, 경북이 1조9484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

삼성화재는 9일 계절별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해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계절 단위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계절 구간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봄 4230원 ▲여름 7730원 ▲가을 7720원 ▲겨울 1만1410원으로 산정된다. 청약일 기준 직전 1년 내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재가입 시 5%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한화생명은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유연하고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10일 ‘푸본현대생명 데이’

푸본현대생명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고객초청 행사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창립 7주년에는 고객초청 행사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푸본현대생명 데이(DAY)’ 행사를 시행한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푸본현대생명의 영업가족 및 고객 등 2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은 플리마켓(Flea Market)과 헌혈 캠페인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플리마켓은 임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지원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헌혈캠페인은 혈액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료현장에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軍 초급간부, 3년간 월 30만원 내면 ‘2300만원’ 준다

국방부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
월 납입액 정부서 같은금액 지원
이자까지 더해… 내년 3월 출시

내년 3월부터 직업 군인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된다.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가 매달 3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복무 지원자도 감소세였던 만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 유효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3년, 1080만원) 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준비적금은 장병 전용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매달 55만원을 납입 가능한 장병 적금보다 월 적립액은 낮지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병적금(18개월·육군 기준)보다 2배가량 길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은 장병적금과 달리 정부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이자액도 더 많다. 기획안에 따르면 실질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통상 연 4% 안팎인 은행권 적금 대비 2배 이상 높다.

미래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4분기 예정된 군인사법 개정 이후 임관

하는 6~10년 이상 의무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다. 미래준비적금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말 처리된 만큼, 국방부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상품 발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된다.

3년이라는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된 미래준비적금이 저조해진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지원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부 선발률(모집 목표 대비 총원율)은 64.9%다. 지난 2019년의 94.1%와 비교해 5년 만에 29.2%포인트(p)나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급여를 비롯한 장병의 처우는

거둬들여 개선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장병의 급여는 병장 기준 150만원이다. 2021년의 61만원과 비교해 89만원 늘었다. 2022년 도입된 장병 적금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급여는 총 205만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200만900원) 및 소위 1호봉 기본급(201만7300원)보다도 많다. 특히 장병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방부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중·장기 복무자의 대부분이 미래준비적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혜택이 비슷한 장병적금의 가입률은 98.4%에 육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리은행, 시니어 위한 ‘내리사랑 안심신탁’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운영

가입금액 1000만원 부터

우리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손쉽게 접근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기존 신탁 상품 대비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

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객에게는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연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 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안승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NFT)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

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 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고객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지분구조 개편

토요타통상 2대 주주 유치… IRA·공급망 규제 리스크 최소화

토요타통상, 공장 지분 25% 매입
美中 갈등, 韓日 협력 대응체제 구축
“배터리 소재 시장 리더십 공고히”

LG화학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일본 토요타통상을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의 2대 주주로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토요타그룹의 종합상사인 토요타통상은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했다. 이번 거래로 구미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토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 24%로 변경됐다. 토요타통상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보유한 지분 49% 중 25%를 인수해 2대 주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LG화학

주로 올라섰다.

화유코발트는 중국내 1위 코발트 생산 업체로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과 정제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협력했다. 그러나 미국 IRA는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제한 대상 외국 기업(FEOC)'으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한다.

LG화학은 이에 대응해 지분 구조를 조정,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IRA 규제 대응과 함께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필요성도 작용했다. LG화학은 현재 양극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로 공급처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토요타통상은 앞으로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지역 배터리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전구체를 거치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을 직접 소성

하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LGPF)'를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토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IRA 규제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청주·구미 공장,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테네시 공장, 중국 우시 공장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전자 “자동차, ‘바퀴달린 생활공간’ 혁신”

IAA 모빌리티 2025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콘퍼런스
“2030년까지 2000만대 ACP 공급”

LG전자가 차량용 웹OS를 비롯한 차별화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앞세워 모빌리티 공간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경험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8~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 은석현 VS(자동차부품)사업 본부장은 “LG전자는 헤드유닛, 디스플레이, 커넥티비티 등을 아우르는 전장 부품 포트폴리오와 약 70년 동안 가전 및 IT 분야에서 쌓아온 고객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하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LG전자 은석현 VS사업본부장이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은 본부장은 “전 세계 2억 4000만대 이상의 스마트 TV에 적용된 웹OS를 기반으로 한 차량용 독자 플랫폼으로, 집에서 즐기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차량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LG전자는 다양한 콘텐츠 업체들과 협업을 지속 강화해 풍부하고 확

장가능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에 차량용 웹OS 콘텐츠 플랫폼(ACP)을 공급하며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SDV 시대 웹OS만의 차별적인 강점인 풍부한 콘텐츠와 지속 확장 가능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두 곳을 최초로 공개했다.

첫 번째 파트너는 차량 내 게임 경험을 거실에서 즐기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엑스박스’다. LG전자는 차량용 웹OS 플랫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추가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내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이지스’, ‘포르자 호라이즌 5’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실내를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썸’과의 파트너십이다. 글로벌 탭디어 화상회의 솔루션 썸은 LG전자의 차량용 웹OS 플랫폼에 네이티브 앱 형태로 추가해 이동 중에도 차량 내에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유럽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 선보

DSEI 통합 부스 마련… 천무 등 소개

한화가 유럽 ‘방산 블록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한화는 런던 엑셀(ExCeL)에서 열리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유럽의 대표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90여 개국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화 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 210㎡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NATO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인 K9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체계임을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 2025’ 한화 전시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조한다.

러·우전장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천무는 유럽의 화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필수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MCS는 사거리 확장과 화력 효율화는 물론,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장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연합군 운용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D현대, ‘지속가능 가스선’ 미래 제시

가스텍서 친환경·AI 기술 소개

HD현대가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에서 친환경·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가스선의 미래를 선보인다. HD현대는 오는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스텍 2025’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선 HD현대수석부회장과 영업·연구개발·엔지니어링 분야 임직원들이 참석해 주요 선사 및 선급과 자사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조선·해운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HD현대는 전시기간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받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HD현대는 노르웨이선급(DNV)등으로부터 ▲선수(船首)거주구 ▲풍력보조추진장치 등을 적용한 미래형 가스선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는다. 이 선형은 선원 거주

공간을 배의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상갑판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풍력보조추진장치를 다수 배치해 연료 효율을 높였다.

연료 사용을 줄여주는 AI 기반의 솔루션에 대한 인증도 받는다. HD현대는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선원의 개입 없이도 장비를 자율적으로 최적 운영하는 솔루션에 대해 기본인증을, 운항 중 중발가스 최적 사용량을 제시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품 설계 평가를 받는다.

선박 내 화재 사고 대응을 돕는 AI 솔루션의 실증을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통합안전관제솔루션의 영상 화재 감지 기능을 선박의 기존 화재감지시스템과 연동 및 실증하고자 스웨덴 컨실리움사와 MOU를 체결한다.

HD현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을 암모니아 이중연료로 개조하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로이드선급(LR)과 MOU를 체결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삼성SDI, ‘SBB 1.7·SBB 2.0’ 첫 공개

RE+ 참가…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 선보

삼성SDI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RE+(Renewable Energy Plus) 2025’에 참가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삼성 배터리 박스(SBB) ▲무정전전원장치(UPS) ▲각형 ▲USA 프로덕션(Production) ▲어워드(Award) 등 5개 전시 존(zone)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SBB 존’에서는 차세대 제품인 ‘SBB 1.7’과 ‘SBB 2.0’을 최초로 선보였다. SBB는 20피트(ft)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안전장치 등

을 통합한 전력용 ESS 솔루션이다. 삼성SDI는 독자 개발한 함침식 소화 기술(E DI),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고장 진단 및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장수명을 확보했다.

‘SBB 1.7’은 삼원계 NCA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 ‘SBB 1.5’와 동일한 컨테이너 사이즈에서 용량을 6.14MWh로 약 17% 확대했다. ‘SBB 2.0’은 삼성SDI가 처음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고유의 각형 폼팩터와 극한 기술을 통해 낮은 에너지밀도라는 기존 LFP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두 제품 모두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전시회 부스 중앙에는 UPS용 고효율

배터리 ‘U8A1’도 전시됐다. ‘U8A1’은 지난 5월 독일 ‘다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으로, 고효율·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해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33% 개선했다.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도 적은 수의 배터리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각형 존에서는 삼성SDI의 차별화된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소개됐다. 알루미늄 캔 타입의 구조적 특성으로 내구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나고, 벤트·퓨즈 등 안전 설계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화재 시 열 확산을 막는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기술을 도입해 셀 간 열 전파를 차단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축적된 배터리 노하우와 현지 생산 역량을 통해 글로벌 ESS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관세 전쟁에 흔들리는 수출 中企… ‘정부지원·다변화 절실’

중기부, 현장 점검회의 대응책 모색
기업들 “물류·자금 지원 등 시급”
10곳 중 6곳 “상호관세 수출 타격”
수출계약 지연·취소 피해 현실화
노 차관 “해외진출 법제화 추진”

#한국은 HS코드가 6자리다. 그런데 미국은 8자리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에 직접 진출시 투자비, 인건비 등 총비용과 한국에서 수출시 늘어나는 관세 부담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략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대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나가는 것은 또다른 비용 부담이 따른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

#어느 쪽이 관세를 부담할지, 수출 자금을 대출 등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면 협상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중순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 실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서 수출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자본 200억 또는 자산 700억→자본 300억 또는 자산 1000억원) 추진 ▲수출 다변화 특 노용석 차관은 "지난번 유럽의 화장품 규제 중 (업체가 제기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달해 EU(유럽연

합) 집행위원장과 의 면담시 해당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선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논의했다.

저스팀 임영진 대표는 "늘어나는 관세만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야기다. 기업도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었냐"며 "우리는 수출이 전체의 30% 정도다. 거래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가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까지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목소리를 전했다.

노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 푸드 등 신흥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양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重, 세계 첫 원자력 LNG선 시대 열다

MSR 추진 LNG선 인증 확보
액화수소 운반선·풍력선 성과
스냅 윈드 플로트 인증 추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 추진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선박용 소형원자로 실현을 향한 첫 걸음이자, 조선·에너지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흐름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개막한 이탈리아 밀라노 가스텍(Gastech) 2025'에서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旗國)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MSR 추진 LNG운반선' 기본승인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선박 설계가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절

차로 실제 건조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단계다.

특히 원자력선 관련 풍부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 선급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아 탄소중립 전환 요구와 맞물려 그 의미가 높다.

이번 LNG 운반선은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원으로 삼는다. 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함께 섞은 용융염을 액체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LNG 운반선은 초저온 화물을 싣는 특성상 고온 원자로와 열적 균형을 이루는 데 적합하고 일반 상선과 달리 인구 밀집 항만에 자주 입항하지 않아 핵추진 적용의 현실성이 크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념 설계 중인 LNG 운반선은 17만4000㎥ 급으로 100MWth 용량의 MSR 1기를 탑재

하면 폐선 시까지 연료 교체가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선박 엔진 대비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부터 해양용 MSR 원천·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이날 노르웨이 선급(DNV)으로부터 선체 크기를 최적화하고 단일 성능을 개선한 '8만㎥급 액화수소 운반선' 인증을, 오는 10일에는 영국 선급(LR)에서 '풍력보조추진 장치 탑재 LNG운반선'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이어 9일과 10일 양일간 글로벌 5개 선급이 15메가와트(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스냅 윈드 플로트'를 인증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한전선, 수주잔고 3조 돌파… 역대 최고치

AI 시대, 해저·초고압 전력망 주문 ↑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가 3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반그룹에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말보다 3.5배 급증한 규모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초고압 전력망 주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8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3조 25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455억원에서 3.5배 증가한 수치로 이 기간 수주 잔고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30%를 상회한다.

수주 잔고는 구리선을 가공하는 소재 사업, 통신케이블 사업, 국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제외된 물량이다.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수주 사업만 추린 액수로, 초고압 전력망이 대부분이다.

대한전선은 올해 8월 한 달에만 ▲안마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프로젝트(1816억원) ▲싱가포르 400킬로볼트(kV)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1100억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총 2200억원) 등 총 51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수주 확대의 배경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쌓아온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탄력 역량을 꼽았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현지에서 최근 진행된 400kV 터키 프로젝트를 5회 연속 수주하며 400kV급 이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인증 받는다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년 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됐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데이터 실무협의체’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진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

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 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진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승호 기자

Time to Chill with
AMERICCINO[❄]



❄ 아메리치노 크러쉬
Americcino Crush

❄ 아메리치노 밀키크러쉬
Americcino Milky Crush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좌표 비공개·보안시설 가림 수용 데이터센터 국내설립 요구는 유지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

티맵모빌리티 등과 파트너십 강화
국가 제작 1대 5000 반출 신청
지도 공개 시 산업적 파급효과 언급

구글이 한국 지도 좌표 비공개와 보안 시설 가림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밀 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구글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지도에서 좌표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며 국내 파트너십 강화 의지도 함께 내놨다.

구글은 현장에서 정부의 안보 관련 우려에 대한 구체 조치를 공개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제기돼 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

화하겠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더해 한국 영역 좌표 정보 비표시 조치라는 정부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반출 신청의 대상과 데이터 성격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청 대상은 국가가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로, 이미 민감한 군사와 보안 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상업 공급업체에서 구매해 별도 자료로 이번 반출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 승인 상태로 가림 처리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에서 확보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고려할 변수가 많다”며 “다만 즉각 대응을 위해 전담 책임자와 정부 핫라인을 운영해 우려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과 데이터센터 설립을 직접 연동하지 않되, 대응 속도

는 전담 창구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국내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자체와 대학,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넓혀 국내외 이용자와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내 파트너사들도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밀지도 반출의 산업적 파급 효과도 언급됐다. 구글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도 데이터 개방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간정보 산업에서 누적 18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고, 연평균 매출 12.49%·고용 6.25% 성장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구글은 교통 신호 최적화와 도시 탄소저감을 목표로 하는 환경 인사이트 익스플로러와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같은 사례도 제시하며 국내 적용 의지를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 AX, 글로벌 제조 공급망 ESG 전환 추진

카테나-X와 IBCT 기술 더해

카테나-X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제조 데이터 온보딩을 주도하는 SK AX가 데이터스페이스 전문기업 IBCT의 기술을 더해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완성한다.

카테나-X는 SAP, 지멘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제조 선도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ESG 데이터 연합체다. 제품 생애 전주기에 걸쳐 탄소를 비롯한 핵심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ESG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한다.

SK AX는 IBCT와 카테나-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생태계 대응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카테나-X 공식 파트너사인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엔드 투 엔드 온보딩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규제 강화와 공급망 데이터 공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카테나-X 참여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SK AX는 카테나-X 공식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로서 참여 등록, ESG 데이터 정합성 검증, 데이터 주권·보안·개인 정보 대응은 물론 운영·교육·유지보수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을



SK AX 장혁수 ESG/SHE본부장(왼쪽)과 IBCT 이정훈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AX 본사에서 카테나-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생태계 대응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 AX

활용해 접속·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며, 글로벌 제조 기업 ESG 데이터 연계 경험을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카테나-X 표준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IBCT는 카테나-X 공식 제휴 파트너로서 SK AX의 온보딩·운영 체계에 자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한다. 안전한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위해 개발한 데이터스페이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인피리움’을 기반으로 데이터 온보딩, 디지털 제품 여권 생성과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 데이터 생성·인증을 지원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김현정 기자 hjk10

엠게임, 홈페이지 직관성·편의성 강화

정보 전달력, 시인성, 집중도 등 확보

엠게임이 9일 자사 게임 포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직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 버전을 선보였다.

엠게임은 장기간 누적된 운영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 ▲UI/UX 전면 개선 ▲게임 탐색 구조 단순화 ▲보안 및 고객지원 기능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이 적용됐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아이콘과 이미지 기반의 시각적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이용 빈도가 높은 메뉴를 상단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화이트 톤 레이아웃에 블루 계열 포인트 컬러를 적용해 정보 전달력과 시인성을 확보했다.

메인 화면은 이벤트, 프로모션, 신작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됐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배너를 통합해 집중도를 높였으며, 핵심 정보가 명확히 노출되도록 설계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털 특성을 반영해 장르별 대표작을 모아 볼 수 있는 ‘게임 탐색’ 영역을 신설했다. ‘열혈강호 온라인’, ‘영웅온라인’, ‘귀혼’ 등 대표 인기작을 전면 배치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원하는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내정보와 고객센터 메뉴도 단순화됐다. 계정 관리와 문의 접수 절차가 간소화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고,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엠게임은 이번 개편을 단순한 화면 교체가 아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쉐리·우버와 사용자 단골력 강화

네이버 커머스 밋업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쉐리N마트’
스마트스토어 인기상품 새벽배송
네이버·우버 멤버십 서비스 연계

네이버가 쉐리·우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선식품·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용자 단골력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9일 종로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커머스 밋업’에서 빅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용자 단골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개했다.

네이버 이윤숙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커머스는 판매자 친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며 “AI커머스 시대에는 사용자 중심 생태계를 확대하고 단골력을 높이기 위해 쉐리, 넷플릭스 등 대표 브랜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쉐리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쉐리N마트’를 선보였다. 쉐리의 신선식품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상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네



(왼쪽부터)네이버 이윤숙 쇼핑사업 부문장, 쉐리 김슬아 대표, 네이버 정경화 네이버플러스스��어 프로젝트 리더. /네이버

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초부터는 쉐리 물류 자회사 쉐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NFA에 합류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도 시작했다.

또한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중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와 협업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우버 원’ 멤버십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기술 측면에서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네플러스)’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

경화네플러스프로덕트리더는 “가격뿐 아니라 배송·리뷰·멤버십 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있다”며 “판매자 신뢰도 지표와 성장 지표를 새롭게 그룹핑해 단골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하반기 네플러스홈 첫 화면에 개인화 추천 영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잠재 맥락과 관심을 정교하게 분석해 스토어 단위까지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KT, 미디어월 활용 디지털 문화 광장 조성

실시간 정보, 미디어 아트 등 선봬

KT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 설치한 초대형 미디어월 ‘KT 스퀘어’를 활용해 디지털 문화 광장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KT 스퀘어는 초고해상도 LED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총면적 1770㎡의 듀얼 미디어월이다. 아나몰픽 기법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와 양측 모니터를 오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다.

KT는 공공·상업 광고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계절·시간·날씨 데

이터를 토대로 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회사는 국내외 아티스트와 협업한 미디어 아트 전시와 공공 시민 참여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KT 스퀘어는 KT의 옥외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통해 운영된다. 광고주는 바로광고에서 광고 청약,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성과 리포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성과 리포트는 유동 인구수와 광고 시청자의 특성을 분석해 대형 옥외 매체를 온라인 광고처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현정 기자 hjk10

업비트 D 컨퍼런스

두나무, 자체 블록체인 ‘기와’ 공개… “스테이블코인 지원”

오경석 두나무 대표, 비전·전략 발표
지갑·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 준비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확보할 것”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혁명’을 맞아 ‘K-금융’의 글로벌 도약을 선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블록체인 기와(KIWA) 등을 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오 대표가 두나무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UDC는 2018년 시작된 이후 매년 개최돼 왔으며, UDC 2025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Blockchain, to the Mainstream)’를 주제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다룬다.

이날 오 대표는 취임 후 처음 공식 석상에 올랐다. 그는 “인터넷 혁명과 인공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능 혁명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면, 신뢰 기반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세계적 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한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무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버블은 진화의 통과의례이고,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코스피·코스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000조원이지만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5400조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자산 보유자는 약 5억6000만명으로,

한국 인구의 11배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부연이다.

오 대표는 “비트코인은 금, 주식을 포함해 전 세계 자산 중 시가총액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가치를 담은 자산이 됐다”며 “다수가 버블을 말할 때,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혁신으로 바라보며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관투자자 유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지니어스법) 통과 등을 진행시키면서 디지털자산 중심을 이끌고 있다.

이어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활성화는 거래소의 유통 역량과 블록체인 인프라 확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0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점유율 99%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업비트는 작년 기준 현물거래

금액이 1740조원으로 국내 1위 거래소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최상위 4위권 안에 드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며 “업비트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한다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바탕으로 채인, 지갑, 트레이블 솔루션, 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인 기와와 기와 월렛을 선보였다. 업비트는 기와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와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두나무는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미래 금융 모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미래의 금융을 한국에서 시작하겠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을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에릭 트럼프 “암호화폐, 우리시대 최고의 자산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차남〉

암호화폐 시장 진입 최적시기 강조
“변화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이 우리 세대의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가장 변혁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화환경을 만들게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이 ‘업비트 D 컨퍼런스(UDC)’ 참석해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철도를 깔고 있다”이라며 “1800년대 초반에 철도가

세계를 바꿨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세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는 치열하게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의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창업한 이유”라며 “암호화폐는 인터넷의 성장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일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 부사장인 한편,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메

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전략책임자(CSO)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봤다. 에릭 트럼프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디지털자산을 잘하고 있는 국가”라면서도 “한국을 비롯해 당국을 설득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크립토 도입을 주저하더라도 변화는 일어난다.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회사와 정부가 존재하고, 이미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며 수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에릭 트럼프는 “전세계 최고의 일가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한정돼 있지만 그 가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디지털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업비트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에 뒤처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디지털자산이 탈중앙화 금융(DeFi)의 영역을 벗어나고 대중에게 외탈게 될 때,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중적 도입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성장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지금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진입 시기”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금값 연일 최고가… 온스당 3650달러 육박

美 금리·선진국 재정 건전성 영향
“헤지 수단으로서 금 지위 높아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겹치면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금등세는 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다. 미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7

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8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약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글로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금값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번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도 금값 상승의 요인이다. 다른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이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올해 들어 다른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0% 하락했다.

ING의 글로벌 시장 리서치 대표 크리스 터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금의 지

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속에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좀 더 일찍, 더 깊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질금리는 다시 마이너스(하락)로 갈 준비가 된 걸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헤지로서 금은 다른 자산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 강세에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한다고 봤다. 그는 “먼저 세계 분절화 심화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나섰다”면서 “러·우 전쟁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미 달러 자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해 금 매수 규모를 늘렸다”고 전했다.

한편, 금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금 ETF 5종의 최근 1주 사이의 총자금 유입금은 4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칸토, 금융 서비스 협력 강화

디지털 금융 등 혁신적 솔루션 제공

삼성증권은 글로벌 종합금융사 칸토와 전략적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현지시간) 뉴욕의 칸토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진행 중인 양사 간 미국주식 브로커리지 서비스 외에도 지금 조달, 디지털 금융, 리서치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양사의 글로벌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1945년에 설립된 칸토는 뉴욕 본사를 비롯해 전 세계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금융사로, 기업금융(IB)을 비롯해 자본 시장, 채권·주식 거래, 프라이빗 서비스, 리서치,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



(왼쪽부터)칸토 공동 최고경영자 파스칼 밴들리(Pascal Bandelier)와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의 칸토 본사에서 포괄적 업무제휴를 진행했다. /삼성증권

루션을 제공 중이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칸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흥미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동서발전, 1.2조 투자 청정 프로젝트 지역균형·신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정부 탄소중립 연계한 대형 사업
영주 무탄소 개발, 북부내륙 새 동력
174억 지원·1008억 세수 효과 기대
산단·AI센터 있는 융합산업 클러스터
생산유발 2조3460억, 지역성장 견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 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남권 내 발전사업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무탄소 전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경쟁입찰 공모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경북도 및 영주시와 협력해 해당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주를 대한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종득 의원, 경북도청 양금희 경제부지사,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 영주시장 유정근 권한대행, 영주시의회 김병기 의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동서발전

국대표 무탄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약 174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수는 100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 역시 약 2조 3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간 영주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기존 도시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에너지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청정에너지 기반

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투자는 한국동서발전의 미래 전략이자 국가 수소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속도

산업부, 제6차 신재생 기본계획 마련
에너지 전환·경제 성장전략 동시 반영
보급혁신·참여모델 확산 등 구체 과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로드맵 ▲재생에너지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지재권 대응 본격화

농식품부와 세미나 공동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T는 지난 주말 현지 진출한 국기업이 밀집한 칭다오에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류창수)과 합

계 이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식품기업 3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변화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소개했다. 또 상표출원·등록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안내됐다.

aT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협력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설

명했다. 또 수출 준비부터 현지 상표권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aT의 주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K-푸드 수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기업 J사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사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행정보호, 사법보호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봄감자 생산량 2년 만에 다시 ‘감소’

통계청,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봄감자 생산량이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상여건 악화에 더해 파종기 가격 하락 여파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5만6000톤(t)으로 1년 전에 비해 10.5%(4만2000t) 감소했다.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 2019년 46만 5948t까지 늘었다가 2022년에 30만 30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후 2023년에 반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봄감자 파종기인 3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또 생육기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아르)당 생산량이 줄어 전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자(수미·상품·1kg) 3월 평균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23년 2396원에서 작년 2281원을 기록한 뒤 올해 1889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은 2023년 1만



서울의 한 대형마트. /뉴시스

4699헥타르(ha)에서 작년 1만5521ha, 올해 1만4927ha를 보였다. 신장기(4월) 저온 피해 및 비대기(5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2383kg으로 전년의 2562kg보다 179kg(-7.0%) 감소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북이 6만 5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5만8000t(16.4%), 강원 4만8000t(13.6%)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아시아 실내환경 해결 모색

서울서 3개국 첫 국제포럼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둘러본

다. 이후에는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또 각국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매년 1조7000억 절감 해법 찾는다

연간 900만t 부산물 처리 대책 논의

농협이 농산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년 약 900만 톤(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개발)연구소는 지난 4~5일 이틀간 대전에서 ‘2025년 농산 부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국책과제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은 국내에서 매년 약 900만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참석자들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산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농협별 부산물 발생 현황 공유 ▲부산물 제품화 기술 소개 ▲업사이클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 재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사료, 13개 지역농협, 광동제약, 케이바이오스 등 산학연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강대의 농협식품R&D연구소장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헛터그룹에서는 누구나 성실하면, 억대 연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터그룹의 성장을 주도하실 프리랜서 영업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헛터그룹 소개

풍요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0년 전통의 "헛터그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홍삼(주) _ 건강백화점 사업부문**

1000여개의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홍삼&건강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 _ 수출 사업부문**

홍삼&건강상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의 36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방송 _ 브레인TV 사업부문**

3,600만여 가구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350여개의 TV채널과 경쟁하여, 당당히 5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장기, 체스, 보드게임 전문 TV방송채널으로서, 강력한 마케팅도구로서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라이프 _ 이커머스 사업부문**

7만여종의 취급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50여개 파트너사에 복지쇼핑몰의 구축과 IT개발관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삼장홍삼(주) _ 한삼인 유통 사업부문**

농협홍삼 한삼인의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와 해외 유통의 독점 판매원으로서, 2009년부터 한삼인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인원
영업지부장 (위촉직/프리랜서)	"헛터그룹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사업설명과 계약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 건강상품의 창업후보자 발굴 ◎ 복지쇼핑몰 개설 후보자 발굴 ◎ TV 광고스폰서 발굴 ◎ 건강 상품 판매, 도소매업자 발굴 등	당신의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경력, 학력 무관	00명

급여조건

100% 성과급 (개척수당+매출액 비례 성과급)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활동시작

연락처 : 010-9954-1067/02-2163-0049

포항시, ‘그래핀 육성’ 성과… 2차원 소재 산업 중심지 도약

포스텍, 교육부 글로벌랩 신규과제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공모 선정
향후 9년간 국비 135억 지원받아

포항시가 그래핀을 비롯한 2차원 소재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신소재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그래핀 육성에 주력하는 가운데, 포스텍이 교육부 글로벌랩 신규 과제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포스텍은 향후 9년간 국비 13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1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그래핀 등 2차원 소재의 응용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항시는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기업 참여와 외부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반도체대



포항시청.

학원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차세대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텍은 지속 가능한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특화 연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과제가 지역 전략산업인 그래핀 육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래핀은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

세대 혁신 소재로, 포항시는 일찍이 그 가능성에 주목해 철강·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첨단 소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왔다.

아울러 지역 내 그래핀 관련 기업들과 교류하며 산업계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

어지도록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또 국가 차원의 그래핀 산업 육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그래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관련 건의를 이어가며, 향후 수요조사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그래핀스퀘어의 세계 최초 그래핀 필름 양산공장 준공이 예정돼 있어, 이번 사업과 맞물려 포항은 2차원 소재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현준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포항이 그래핀 등 2차원 소재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선도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t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몽골과 기후·농업 등서 협력

전라남도는 지난 7일 3박 4일간의 몽골 공식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통상·농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도 최초 몽골 방문으로,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비롯해 농업기술 협력, 관광홍보, 문화교류,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방문의 핵심 성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아마르투브신 암갈란비타르 부시장과 협약을 하고,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축전 등 가을축제 다채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웰파트호텔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을시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활력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비롯해 ‘2025세계유산축전’, ‘제52회 모양성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주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 모양성제까지 올 가을 고창군이 축제와 행사로 들쭉인다”며 “전북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고창에서 머물면서 고창군 이미지를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함평군

장애인체육회 공식 출범

전남 함평군이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장애인 체육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9일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8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체육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영덕군

오는 13일 테니스 축제 열려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생활체육의 열기를 더하며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 축제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영덕군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영덕군민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 테니스 동호인 중 대회 기준 구력 36개월 이하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출전한다.

경기 방식은 예선 조별 리그전을 통해 순위를 가린 뒤,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가 한국동서발전과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경북도,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 추진

동서발전 ‘맞손’… 전력수급 대응 1.2조 투자해 2035년 준공 목표
1182억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기대

경북도가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 지역에 무탄소발전소를 건립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전력수급에 대응하는 한편, 풍부한 전력을 활용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영주시는 사업 부지 확보 등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적극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총 11만 5000㎡(3만5,000여 평) 규모 부지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며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방세 등으로 약 1182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이 완료되면 직접 고용인력 250여명, 가족을 포함하면 750명이 영주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돼 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경실련 “신백양터널 사업 중단하라”

통행량 증가, 8.5%에 그쳐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근거 없는 수요예측을 앞세운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올해 초 무료화한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수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백양터널 한시적 무료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량이 최소 28~최대 3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백양터널로 통과한 차량은 167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0만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백양터널의 병목현상은 차로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광주시, 국방 무인체계 경쟁력 확보

전남대, 글로벌랩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와 광주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랩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 무인 국방체계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글로벌랩 사업은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 기초연구 성과 창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전국 11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비수도권은 전남·광주를 포함 6곳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대는 지능형 무인체계 분야에 2034년까지 9년간 매년 15억원, 총 13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남·광주 국방·AI 융합 분야의 거점 연구소로 도약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우주·국방 산업과 광주시의 AI 산업을 연계, 국방 분야 핵심 기술인 거점식 무인방어 체계와 이동식 무인작전 체계를 중점 개발하는 것을 연구 분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국방 무인체계 구축 ▲AI반도체 개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광주 AI특화단지,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등과 연계해 전남·광주·고흥 국방 전략 기술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글로벌랩 공모사업 선정에 필요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광주·고흥군·전남대·목포대와 함께 전남 국방산업·광주 AI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목포로 몰려드는 해양쓰레기… 해결책 절실

원인 차단기술, 예방체계 구축 제안

매년 풍수해 때마다 목포 앞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을 개방하면서 16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한다. 이 중 상당수가 하천을 따라 유입된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적 수거에 의존해 왔지만 이는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단순 수거가 아닌 원인 차단 기술 개발과 예방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인천공항-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갈등

법원 강제조정 불복… 소송전 양상

法,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
인천공항측 불수용 입장 밝혀
면세업계, 사태 파장 예의주시
신라·신세계 철수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료 25%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양측 모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이번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신라면세점에 연간 약 임대료 583억원을 깎아줘야 한다.

비슷한 시기 임대료 조정신청을 한 신세계면세점도 조만간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면세점이 임대 중인 올해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는 약 3099억원에 달한다. 2024년 2475억

원, 2023년 856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양 사는 운영적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차 조정 직전엔 요구를 30~35%로 낮췄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차 기일에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됐다고 보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 측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라면세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면세점에 있거나, 정식 소송을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가 하면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면세점 당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현재 면세점이 매달 50~100억원 수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매년 높아진다면 위약금을 부담하고라도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외국인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5% 감소한 4조841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이 16.1% 늘어나며 513만명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면세점이 아닌 시내 구매를 늘리면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두 면세점이 철수할 경우 인천공항 측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 이진협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두 면세점이 모두 철수한다면 급해지는 건 인공궁이 될 것”이라며 “면세점 업황이 좋지 못한 데다 신라, 신세계가 패널티로 입찰이 힘들어지는 만큼 입찰 흥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인 CDFG가 참여 가능성을 보이는 것 역시 인천공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정 결과 재입찰할 경우 현 수준에서 임대료가 약 40% 낮아질 거라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이커머스, 페스타 등 오프라인 콘텐츠 강화

소비자 연결 통해 온라인 한계 극복
IPO 앞두고 기업 가치 극대화 분석도

온라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SSG닷컴, 컬리, 무신사,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체험형 페스타를 잇따라 열었다.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SSG닷컴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에서 뷰티, 식품 브랜드를 모은 오프라인 페스타 ‘미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SSG닷컴이 처음으로 여는 오프라인 페스타다.

오프라인 페스타를 여는데 나서는 건 SSG닷컴뿐만이 아니다. 컬리는 지난해 10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뷰티컬리페스타를 연 데 이어 12월엔 코엑스 마곡에서 푸드페스타를 진행했다. 쿠팡은 올해 4월 성수동에서 ‘메가뷰티쇼 베투얼스토어’를



지난 4월 열린 ‘메가뷰티쇼 베투얼스토어’

/쿠팡

선보였다. 무신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성수에서 뷰티페스타를 열었다. 지그재그도 올해 4월 성수동에서 뷰티페스타를 진행했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에 주력하는 이커머스는 공동점을 가진다. 이커머스가 잇따라 오프라인 페스타를 여는 건 온라인 내에서만 상품을 보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소비자와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뷰티, 식품 제품군은 직접 체험이 중요한 만큼 체험형 콘텐츠가 늘어난 추세다.

SSG닷컴 관계자는 페스타를 두고 “단독 먹거리와 뷰티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무신사, 컬리처럼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기업에게 오프라인 행사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가치 10조 원에 도전하는 무신사와, 올해 첫 반기 흑자로 상장 재추진에 나선 컬리 모두 오프라인에서의 성공적인 ‘얼굴 알리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종욱 기자

CJ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CJ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 참여

CJ그룹이 오는 10일부터 2025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에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푸드빌, CJ프레시

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CJ 4DPLEX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지원서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9월 24일이다.

지원자들은 서류 접수 후 안내에 따라

먼저 역량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서류 심사와 역량검사 결과를 종합해 선발된 합격자는 ▲조직문화 적합성 검사(CJ Culture Fit Test) ▲1·2차 면접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에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서 있을 입문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마트, 가성비 ‘추석 선물세트’ 인기몰이

사전비축·통합매입으로 가격 인하

이마트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전 비축과 통합매입을 통해 가격을 낮춘 ‘가성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가격이 오름세인 사과, 배 등과 일부부터 한우, 김 세트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한다.

실제 이달 4일까지 사전예약 기간과 일 선물세트 매출 1~4위는 모두 5만원 미만 상품이 차지했다. 매출 1위인 ‘유명산지 사과’ 세트는 사전 매입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가격에 내놨고, ‘유명산지 배’와 ‘나주 전통배’ 세트는 지난해보다 10%가량 가격을 낮췄다.

축산 선물세트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처음으로 통합 매입을 진행한다. 자체 축산 가공센터 ‘미트센터’를 활용해 원료를 사전 비축하는 방식으로 ‘피코크 한우 등심 불고기 세트’(16만원



이마트 추석선물세트 매대.

/이마트

대) 등 17개 공동 운영 상품을 기획했다.

최근 5년간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김 선물세트 역시 3만원 미만으로 신규 개발했다. 지난 설 명절에 매출이 50% 이상 늘었던 ‘켄김’ 형태를 활용해 ‘만전김 켄 혼합세트’ 등을 2만원대에 선보인다.

이마트 황운기 상품본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자 사전비축과 통합매입으로 명절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4900원 초저가 와인 만나보세요”

롯데슈퍼와 ‘테이스티 심플’ 2종 출시

롯데마트와슈퍼가 4900원짜리 초저가 와인을 선보이며 와인 가격을 낮췄다.

롯데마트와슈퍼는 칠레산 와인 ‘테이스티 심플(카베르네 소비뇽·소비뇽 블랑)’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고물가 속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 기획 상품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줄었지만, 수입량은 13.2% 늘어단가가 낮은 가성비 와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롯데마트와슈퍼는 상품 조달 조직을 통합해 이번 상품 30만 병을 사전 계약하는 등 대량 물량 확보로 가격 경쟁력을



모델들이 ‘테이스티 심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테이스티 시리즈’ 라인업도 확대한다. 이달 11일 이탈리아 ‘폰타나프레다’, 프랑스 ‘샤토몽페라’ 등 유명 와이너리와 협업한 ‘테이스티 No.5~7’ 3종을 1만원대에 새롭게 내놓는다.

/손종욱 기자

신제품

CJ제일제당 ‘제일맛게컬리 김치’ 2종

국내산 100% 세절초 고춧가루 사용

CJ제일제당이 컬리와 공동으로 기획한 신제품 ‘제일맛게컬리 매일 맛있는 김치’ 2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깊이 있지만 부담 없는 맛으로 매일 먹고 싶은 김치’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로, ‘제일맛게컬리 매일 맛있는 김치’를

기획, ‘포기김치(3kg)’, ‘종각김치(1kg)’ 두 가지를 선보였다.

고춧가루 분쇄 방법부터 차별화해, 깨끗하게 씻고 말려 곱게 갈아낸 진홍빛 국내산 100% 세절(洗切)초 고춧가루만을 사용,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과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깔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롯데웰푸드 ‘프리미엄 가나’ 시즌 한정판

‘사과와 피넛버터·밤과 카라멜’ 2종

롯데웰푸드가 가을을 맞아 ‘프리미엄 가나’ 시즌 한정 제품 2종을 선보인다. 프리미엄 가나는 기존 가나 브랜드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은 상위 라인이다.

이번 신제품은 가을 제철 과일인 사과와 밤을 활용한 웰 형태의 초콜릿 ▲‘프리미엄 가나 사과와 피넛버터’ ▲‘프리

미엄 가나 밤과 카라멜’ 2종이다.

‘프리미엄 가나 사과와 피넛버터’는 진한 피넛버터 필링에 달콤한 청송 사과 시럽을 더했다. 사과와 피넛버터를 함께 먹는 트렌드에서 착안했다.

‘프리미엄 가나 밤과 카라멜’은 고소한 공주 밤 필링과 달콤한 카라멜 시럽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육성 수혜 기대

정부, 전임상 단축 본격 추진
오가노이드 시험법 적극 개발
규제혁신·지원 강화에 속도
K-바이오 산업 성장세 전망

국내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정부의 바이오 규제 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9일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의약 산업 혁신 토론회에서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를 주제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 유관 단체,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개발로 비임상 시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R&D)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혁을 열린 자세로 추진하고,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합동 정책 발표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의약산업 혁신 토론회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가 건의 발언을 하고 있다. /KTV캡처

관계부처가 차례로 바이오의약 산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여 비임상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임상 단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정 장관은 동물대체시험법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의외에도 미래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재생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는 “정부가 오가노이드 기술을 동물실험 대체법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점은 당사뿐 아니라 전체 바이오

산업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연구개발과 상용화 성과 창출을 한층 가속화하여,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와 상용화에 집중해온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차세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통한 상용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빠르고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와 계획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그간 쌓아온 연구 성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의지와 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리며,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산업은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출시 10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가 누적 판매 5000만 개를 넘어섰다.

스타벅스

10년 장수푸드 ‘부생카’ 누적판매 5000만개 돌파

스타벅스 코리아는 출시 10주년을 맞은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가 누적 판매 5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2015년에 첫 출시된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는 촉촉한 카스텔라 안에 생크림이 듬뿍 들어있는 케이크로, 최초로 시종한정 푸드로 출시되었으나 고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상시 판매 푸드로 전환됐다.

이후 일명 ‘부생카’로 알려지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스타벅스 케이크 중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수 상품이자, 온라인 푸드로서 명성을 지키며 업계 트렌드를 이끌어오고 있다.

실제로 출시 첫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는 10년 연속 스타벅스 전체 푸드에서 부동의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일 2만개 가까이 판매되며 10년간 누적 판매 5000만 개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름이 약 8cm인 제품을 일렬로 세웠을 때 서울과 부산을 약 5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에 해당한다.

/이세경 기자

뚜레쥬르

베트남 달군 말차 품미 ‘빵·케이크’ 판매 대히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말차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베트남 시장에서 검증된 말차 제품의 우수한 제품력과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몽골과 캄보디아 등 뚜레쥬르가 진출한 주요 인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뚜레쥬르는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말차를 활용한 빵과 케이크 등 총 4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작년 말에는 국내 인기 제품인 ‘한 잔씩 뜯어먹는 32점 브레드’에 말차를 접목한 제품도 출시했다. 뚜레쥬르 말차 제품은 출시 직후 전 매장에서 제품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예약 주문이 폭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인기에 힘입어 뚜레쥬르는 올 8월 베트남에서 말차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빵과 케이크, 롤케이크 및 음료 등 총 8종을 선보였으며 카테고리도 더욱 확장했다. 올 8월 말 기준 말차 제품들의 누적 판매량은 80만개를 돌파했으며, 8월 한 달간은 약 10초에 1개씩 판매되는 등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롯데잇츠’ 새단장… 사용자 편의성 강화

롯데GRS 메인화면·결제 간소화 고객 경험 중심 서비스 전면 개편

롯데GRS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롯데잇츠(Lotte Eatz)’ 새롭게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리뉴얼 당시 온라인 주문 중심의 온오프라인 기능 통합 및 리워드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편의성 중심 개편 이후 자사 앱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용자 반응 조사 등을 토대로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앱 사용의 개선점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주요 개선점으로 메인 화면 인터페이스 개선과 할인 혜택 탐색 편의성 확대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쿠폰 사용 및 결제 간편화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을 실시했다.

앱 접속 첫 화면의 8개 브랜드 직관성 있는 정보 위주로 GNB(메인 메뉴) 등 가

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혜택 및 쿠폰 안내 중심으로 개편해 사용자 우선에 따른 콘텐츠를 재 배치했다. 또 쿠폰 확인부터 사용까지, 주문 고객의 혜택 인지 과정부터 사용까지의 과정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 영역을 축소하고 쿠폰 리스트 UI 개편 및 필요 정보 노출을 강화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결제 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확인이 필

요한 주문 정보·할인·결제 영역을 상단으로 개선 배치하였으며, 고객 사용 패턴에 따른 기본 설정으로 불필요 영역 간소화로 결제 과정 축소를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잇츠 회원수는 500만을 넘어서며 단순 주문 앱 채널을 넘어 고객 DB를 활용한 신규 고객 창출, 기존 고객 유지의 빅데이터 채널로도 중요한 고객 접점 채널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앱 사용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문 고객 중심의 편리성 확대에 고객 경험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위메프’ 결국 파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청산 가치 더 크다”
1조3000억 미정산 1년 만에 좌절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위메프가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데보다 자산을 청산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위메프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법원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1년 넘게 회사를 정상화시킬 인수자를 찾아왔으나 난항을 겪으며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최근 제너시스BBQ 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는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이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을 인수자로 맞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JW생활건강 “그랜즈레미디, 유사품 주의보”

홀로그램 공식 스티커 부착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유사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엔데버 헬스 컨슈머 리미티드의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를 국내에서 공식 수입해 총판하는 곳은 JW생활건강이 유일하다.

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35g 제품을 판매해 왔고 올해 6월부터는 50g 제품 판매도 시작했다. 그랜즈레미디는 분말형 신발 냄새 제거제로 오리지널(무향), 페퍼민트, 오렌지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탈취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가 유사품은 정품을 사칭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소비자 후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 /JW생활건강

기에서도 효과가 없거나 냄새 제거 기능이 미흡하다는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 본사와 협력해 정품 식별을 위한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정품과 가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한국외대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가장 많은 국가와 교류하는 대학
102개국 613개 대학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 8개 신설
Language & AI융합학부 / 반도체학부 /
Finance & AI융합학부 / AI데이터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기타 융합학부

반도체 분야 5년간 7개 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2024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학교 부문 2년 연속 2위

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상 수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114억원 지원

HUFS INNOVATION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메인비즈協, 회원사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메인비즈협회는 시장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는다고 9일 밝혔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오른쪽)이 박재천 한국시장경제진흥원 이사장과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협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중소사랑나눔재단, 단양에 쌀 2700kg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8일 충북 단양군경시장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쌀 2700kg을 구입하고 이를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다래동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단양군지회 등 4개 지역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 4번째부터)한병준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유한양행, 몽골 사막화 방지·탄소중립 실현 협력

유한양행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사무국에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며 '몽골 사막화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 볼드바타르 빌리언 트리스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광동제약,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 캠페인

광동제약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를 기념하며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확산하고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광동제약



하나銀, 전국 장애인·돌봄가족에 포용금융 제공

하나은행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기아, 교육·인턴십 등으로 다문화 청소년 성장 지원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통해 다문화 전문가와의 대화 등 마련 우수 수료자에 장학금 시상 2기 교육생에 응원 메시지 전달

기아는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1기 수료식 및 2기 입학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모니움은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4월 1기 교육생을 모집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선호 영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IT기술 ▲F&B ▲영상편집 ▲조경기술 등 4가지 특화 교육영역을 진행했다. 교육 영역의 소셜벤처들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기아 하모니움 2기 입학식.

다문화 선배 초청 특강, 오토랜드 견학 및 개인 프로필 촬영 등 특별 프로

그램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1기 교육생들이 참여

LS, 강릉 가뭄현장 소방공무원에 간식 제공

‘LS러브스토리’ 3호 선정

LS는 최근 극심한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급수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LS러브스토리’ 3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3호로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릉지역으로 파견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급수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

LS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며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7종과 샌드위치 등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LS가 9일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커피차를 운영하고 있다. /LS

LS 관계자는 “가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릉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소방공무원들이야말로 진정한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며, 이 작은 보탬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대목동병원,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박차

이뮤니크와 ‘맞손’

이대목동병원이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이뮤니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재생불량빈혈 조절 T세포치료제의 기초 및 임상상연구 수행 ▲임상시험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 발표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 정보 및 연구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임상 역량과 이뮤니크의 세포치료 기술을 결합해 조절 T세포 기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뮤니크 권소미 대표이사는 “이번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왼쪽)과 권소미 이뮤니크 대표이사(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협력은 조절 T세포(Treg) 기반의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통해 희귀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불량빈혈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에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한금융그룹, 韓-日 금융협력 강화

‘韓·日 금융협력 세미나’ 열어 SDGs·디지털 분야 협력 모색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이 주최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일본 금융청, 아시아자본시장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날 세미나는 ‘전환금융과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참가자들은 금융권의 전환금융 실행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가능성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특히 신한금융은 지난 5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제정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추진 전략과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준법감시인 이사대우 박선영
- ◆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청장비서관 나상수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부음

- ▲ **김영태씨** 별세. 김기훈(NH투자증권 SME부 부장) 부친상 = 8일, 경기 김포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10일, 장지 김포추모공원. 031-989-4404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5 QS 아시아 대학평가
TOP 1%

2024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

2025 Times 세계대학평가
국내 7위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모집전형

2025. 9. 9.(화) ~ 9. 12.(금)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학생부종합 :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 5도,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

군계약학과 : [교과] 항공시스템공학(공군)

[종합] 사이버국방(육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해군),
국방AI로봇융합공학(해병대)

실기우수자 : 회화과, 패션디자인학과, 음악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세종대학교

키아프·프리즈 서울, 공존의 빛과 그림자



홍 경 안 역
시사일각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ong Kong)'은 오랫동안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 향유부터 관광, 작품 구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트 블랙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예전의 영향력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홍콩이 주춤하는 사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한 곳은 서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컬렉터들이 주목하는 대안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이하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이하 프리즈)의 공동 개최 또한 국제적 미술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행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3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된

프리즈에는 약 7만 명이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리즈보다 하루 더 열린 키아프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8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또한 양호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몇 점의 고가 작품 판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격은 예년 대비 현저히 낮아졌고,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키아프가 프리즈의 2부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프리즈가 서울에 입성할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사실 5년 간 프리즈와의 동행을 결정한 2022년 당시만 해도 키아프 측은 아시아 최고 미술시장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치러진 네 번의 공동 개최 결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유력 화랑들마저 키아프를 떠나 프리즈로 이동했고, 관람객들 역시 프리즈를 우선 관람한 후 키아프를 둘러보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안방까지 내어준 상황에서 주도권마저 프리즈에 넘어간 형국인

셈이다.

키아프와 프리즈와의 동행은 이제 한 번 남았다. 프리즈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 전시를 희망하는 모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아트페어는 철저히 자본논리에 움직이는 곳이고, 고급 콘텐츠인 미술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프리즈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서울의 높은 문화수준' 운운하지만 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키아프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발판일 뿐이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문화의 주체가 아닌 글로벌 프랜차이즈 패어가 주도하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뒷받침과 명확한 비전 및 큐레이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예술성 중심의 작품과 갤러리 선별, 재원 마련을 위한 남다른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키아프와 프리즈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유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키아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 파워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리즈와의 격차는 해소될 수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더 많은 칼보다, 더 나은 칼이 필요하다



기 지 수 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주방에 칼이 많다고 요리가 더 맛있어진 건 아니다. 잘 들지 않는 칼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은 거칠고, 손질은 지저분하며, 요리는 아까와 손목에 통증만 남긴다. 요리에 중요한 건 칼의 '수'가 아니라 칼을 쥔 손의 숙련도'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원칙이다.

금융감독 체계도 마찬가지다. 조직도를 화려하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감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을 둘로 쪼개고, 금감위라는 새 조직을 세우고,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각난 체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길을 잃게 되는 건 감독당국이

아니라 소비자가 될 공산이 크다. 사고는 한 몸으로 터지는데, 책임은 흩어지게 된다.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독립성 논란이 격화됐던 시기다. 당시에도 지적된 건 '정치로부터의 거리'였다. IMF가 금감원을 특수법인으로 설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5년,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ESG 회계, 디지털 자산, PF 사업성 평가, 이해상충 점검처럼, 단일 부서나 단일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연일 쏟아진다. 이제는 감독국 간의 수평적 공조와 기능간의 입체적 연결이 필수다.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연결할지가 중요한 때다.

하지만 지금의 개편안은 그 흐름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기능의 효율적 배분'이어야 하지만, 실제 논의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전직 원장의 '미운털'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들이 마치 개편의 동력처럼 작용한다. 향간에는 '금소원 자리에 친정권 측근을 앉히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사이 실무자들은 감독 개혁이 아닌, 불필요한 루머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긴급 설명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는 조직을 잘게 나누며 감독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외치지만 자리를 나누는 개편에 최소한의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설계에는 방향이 없다.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을 가늠치처럼 팔팔 뛰게 만들겠다"던 이원장은 참묵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을 나누는 '많은 칼'이 아니라, 그 칼로 무엇을 지킬지 말할 사람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0일 (음 7월 1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다이나믹한 인생. 48년생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60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요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 세상사. 72년생 강박관념은 항상 진행형. 84년생 홀로 자족하며 지내고 있어도 땅속에 보물이 있으니 행복.



소

37년생 음지보다 양지를 선택하게 된다. 49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61년생 흔들리지 않고 파는 꽃은 없다. 73년생 보이는 것도 있고 고상하게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다. 85년생 어두운 얼굴은 복을 깎아 먹는다.



호랑이

38년생 잘 살펴서 피할 것은 피해 볼 일이다. 50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62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74년생 바다 건너에서 소식과 함께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86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토끼

39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51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63년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75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87년생 초가삼간 태우는 격.



용

40년생 영업장에서 인사 없이 주문부터 받지 말라. 52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64년생 일할 때가 안심된다. 76년생 사별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 것이다 사야 될지 말자는 선택. 88년생 인생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뱀

41년생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53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하게. 65년생 평소 실력으로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77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89년생 친구 모임이 있는 날.



말

42년생 가족여행을 포기하더라도 원행은 말린다. 54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6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78년생 업무능력과 업무시간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시간 끝지 말라. 90년생 먼저 칭찬해주면 마음을 얻는다.



양

4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55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6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는 것이 현명. 79년생 제3자와의 긴 비밀은 없다. 91년생 종종 긴 숨을 쉬고 생각을 가다듬자.



원숭이

44년생 조연도 사람을 바가며 들어야 한다. 56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 주의. 6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80년생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전환점이다. 92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닭

45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57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 69년생 불운의 요소를 안다면 바뀌기면서 복덕을 증진시켜보라. 81년생 지금 행운이 가장 소중하다. 93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개

46년생 지는 앞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58년생 문서 운이 길하니 매매도 원만. 70년생 노력에 의해 불행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된다. 82년생 사람이 채우려는 재물은 끝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94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돼지

47년생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59년생 새로운 이상이 다가오나. 71년생 우울증이 생기면 재발이 되니 극복하려는 본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83년생 계약하여 재물이 이익 발생한다. 95년생 신용을 중하게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않도록.

김상회의四季

진언의 영험



광명진언의 영험을 말씀드렸는데 불교의 신앙 체계에 있어 신앙가피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대승불교에 있어 대표적 예불 문인 천수경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긴 진언과 이런저런 짧은 진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라니 또는 진언을 염송하는 공덕과 효험의 예는 넘친다. 광명진언은 2~7번 외우면 죄업이 소멸함은 물론이요, 흙이나 모래에 108번 외운 후 묘지에 뿌리면 죽은 이의 업장을 정화해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특히나 이 광명진언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모두에게 신성한 주문으로서 이미 중국 당나라 시대 때부터 경전에 수록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고 특히나 원효대사가 "유심안락도"에서 공덕을 강조했으며 그 이후 조상 천도기도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진언이다.

근대의 훌륭한 큰 스님인 일타스님도 조상 천도재때 반드시 염송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불자들이라면 성묘 또는 묘사를 지내러 갈 때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모래를 준비하여 조상님들의 묘 위에 뿌려주자고 한 것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오랜 기간을 어둠에 휩싸여 있던 동굴일지라도 불을 밝히면 한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깃드는 것처럼, 깊은 죄업(罪業)으로 어둠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밝아지며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의 영험 원인인 것이다. 광명진언은 천도재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혼인이나 이사, 개업 등 일상에서 복락을 기원할 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염불 수행으로도 권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보살님들마다 그 기운이 함축된 진언은, 결국 악귀와 재앙을 물리치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 소원 성취로 불국토에서 해탈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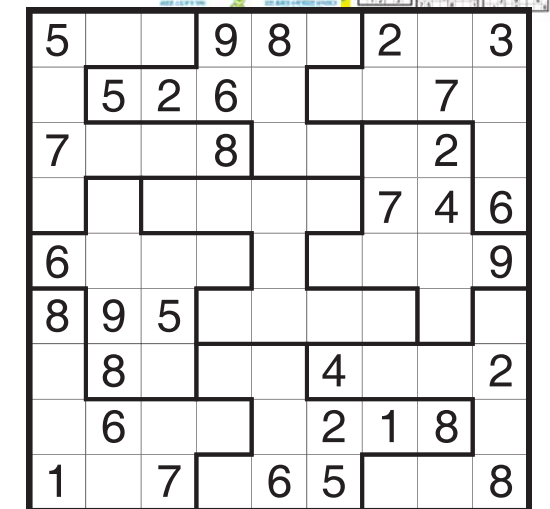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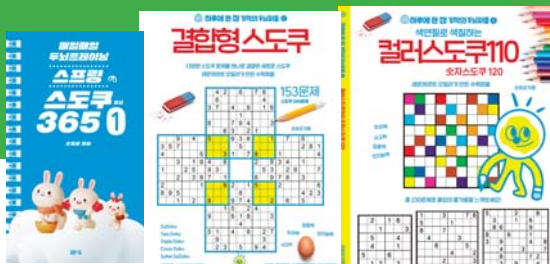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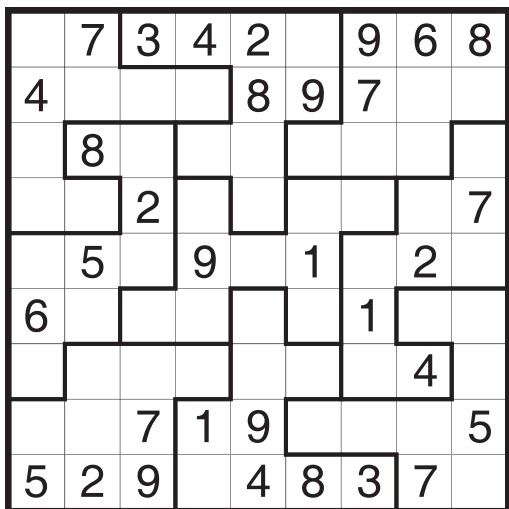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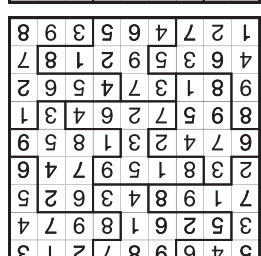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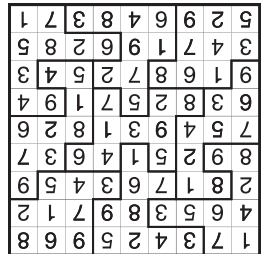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아티브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성진학교 설립, 시의회 교육위 통과 통학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대

서울시교육청, 12일 본회의 의결
총 22학급 규모, 2029년 개교 목표
정근식 “차별없는 교육 지지 부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9일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이뤄져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총 22학급(유2, 초6, 중6, 고6, 전공과2) 규모로 설립된다.

성진학교가 설립되는 성수공고 폐교 부지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1만 3800㎡)를 분할, 성진학교(8000㎡)와 지



지난달 27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회 공동 활용 시설(5800㎡)로 나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공고 폐교 부지 남측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재개발 구역에는 94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구 의원인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성진학교의 안착과 지역 주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수공고 부지의 복합 활용 방안, 즉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병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제안에 대해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연계, 학교 신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뜻을 모아준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청과 시의회,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1년’ 개포도서관 개축… 미래교육 거점으로

서울교육청, 도서관 중 최초 재건축
2028년 1월 완공…공영주차장 조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984년 개관 이후 40여 년 만에 개포도서관을 전면 개축한다. 연면적 1만2711㎡ 규모로 확장되는 신축 도서관은 시민 소통과 청소년 전용공간, 친환경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협력해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2711.37㎡ 규모의 개포도서관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신



개포도서관 투시도. /서울시교육청

축 도서관에는 북카페,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일반자료실,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며, 창의·융합형 메이커 교육, 디지털 체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총 218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

장이 함께 조성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과 도서관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례로, 향후 서울형 미래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로이 탄생할 개포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지식을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교육·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며 “41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강남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바람을 실현하고 미래형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獨 드레스덴서 미래산업 협력 속도

이동환 시장, 글로벌 기업 등 찾아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협력 논의

고양시가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작센(Silicon Saxony)’의 중심지 독일 드레스덴과 손잡고 글로벌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드레스덴을 방문해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투자·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보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맞춰 글로벌 첨단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이 시장은 먼저 세계적 바이오 분석기업 ‘리포타입(Lipotype GmbH)’을 찾아 지질 분석 기술의 상용화 및 정밀의료 솔루션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 드레스덴 시청에서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교육청 9급 107명 합격… 평균 32.3세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발표
여성 40.2%, 최고령 합격자 55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107명을 발표했다. 여성 합격자는 43명으로 전체의 40.2%였으며, 평균연령은 32.3세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07명 명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험에는 총 3152명이 지원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139명이 지난달 30일 면접을 거쳐 최종 107명으로 압축됐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58명(장애인 7명·저소득층 2명 포함) ▲사서 6명(장애인 1명 포함) ▲공업 2명(일반기계) ▲시설관리 41명(국가유공자 6명 포함)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2.3세로 지난해(31.4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40.2%인 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자 비율 62%(258명) 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40명(37.4%), 40~49세 12명(11.2%), 50세 이상 5명(4.7%) 순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 직렬 2003년생(22세), 최고령 합격자는 같은 직렬 1970년생(55세)이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일반) 직렬에서 남성 6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 제도는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해 서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마지막 판자촌’ 백사마을, 명품단지 탈바꿈

오세훈 서울시장, 철거상황 점검
사회통합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

오세훈 서울시장(9일 오전 10시)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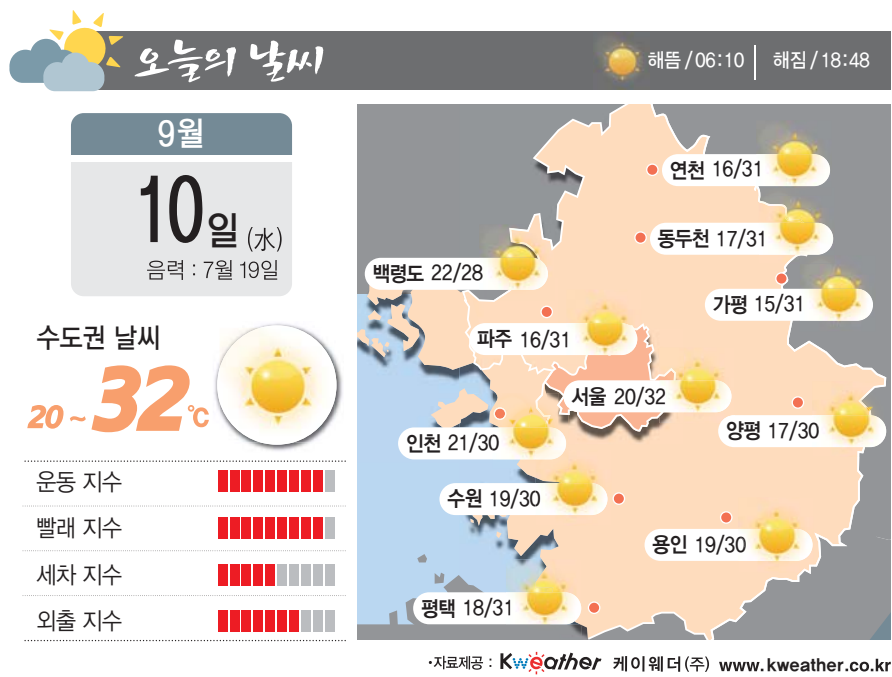
오세훈 서울시장(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백사마을은 지난 8월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 탈바꿈 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2심도 패소… “1150억원 배상” /사진 뉴시스
▲美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3.2%로 ‘안정’… “고용 전망은 최악”

▲바닷속도 美-中 패권다툼…첨단 잠수함 경쟁 불붙는다
▲“日이시바, 유엔 총회 때 전후 80년 메시지 내는 방안 부상”

▲이스라엘군 또 가자시티 고층빌딩 폭격, 폐허로…정전협상은 계속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규모 5.2 지진 발생, 아테네에서도 진동 느껴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육성 수혜 기대
L2



Life

기아
다문화 청소년
성장 지원
L4



“배움에서 찾은 건강… HDL 연구로 풍요로운 삶 나누고파”

속깊은 인터뷰

이 병 구 레이델코리아 대표

이병구 레이델코리아 대표는 지난 40년간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해 온 성공한 사업가이면서도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그의 공부는 계속되며 건강한 삶과 헬스케어 사업,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배움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배움의 시작은.

“1955년 시골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과 혼란 속에서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절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여의고 형과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됐지만, 불만, 불평보다는 성실함과 희망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미군 부대 안에 있던 건설 사무실에서 급사로 일하게 됐었는데, 돌아해보면 그 시절이 인생의 빠가 되고 살이 됐다. 당장 주어지는 급사 월급으로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았다.

1970~1980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지던 때 중동 건설 현장의 사무직으로 파견 근무도 다녀왔다. 나라 경제 성장과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 환경은 덥고 열악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배움은 있었다. 학벌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지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고 다함께 치열하게 일했던 경험은 훗날 사업가의 길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처음에 어디서 접했나.

“호주 이민 1세대로서 1982년 호주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인은 많지 않았고 구직 시장에서는 동양인은 물론 서양인보다 경쟁해야 했으니 미싱, 청소 같은 단순 노동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서 동물 모양의 장식품을 팔았다. 허름한 물건도 광(光)이 나도록 한참을 닦아서 진열해 놓으면,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면서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바로 이 순간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평생 사업을 일궈내는 성공 방정식이 됐다.

이민 4년 만인 1986년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건강 기능식품 매장을 인수한 것이다. 로열젤리,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은 많아졌지만, 앞서 얻은 나만의 원칙을 실천했다. 매장에 먼저 한 톨 없게 깨끗하게 청소부터 했다. 상품은 종류별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부터 효과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일이었다. 전문 용어는 생소하고 영어는 서툴렀지만 능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일수록 거래처에서 정보도 제공해 줬고 손님들이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폴리코사놀에 주력하게 된 계기가 있다.

“1990년대 들어 호주에서 사업을 점차 확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도 형이 지방간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식이 또 전혀 없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다. 세포막을 유지해 주고 여러 가지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 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많거나 콜레스테롤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 깨지면,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 쌓이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간 환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



이병구 레이델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레이델코리아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

전쟁, 가난, 혼란 속 생존 위한 어린시절 보내
1982년 호주로… 이민 1세대 어려움 겪어
4년만에 건강기능식품 매장 인수, 사업확장

지방간 위험성 알게된 후 콜레스테롤 연구
HDL 높이는 쿠바산 폴리코사놀 독점수입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해외시장 입지 넓혀

유전공학 전문가 조경현 교수와 협력 지속
국내 최초 ‘HDL연구소’ 설립, 연구 고도화
쿠바산 천연물 활용한 만성질환 치료 연구



우가 많아, 지방간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분해할 수 없고,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제거 기전에 관여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운반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질(HDL)’이다.

기존 로열젤리를 공급하던 파트너에게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HDL 수치를 높여주는 원료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쿠바를 직접 방문했다. 당시 쿠바국립과학연구소는 동물 실험을 통해 쿠바 대표 작물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의 효능을 입증하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실제로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쿠바국립과학 연구소는 폴리코사놀 발명으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독점 수입해 호주에서 판매했고 현재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는 등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안착시켰다. 향후에도 30년 가까이 이어온 쿠바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미래 헬스케어 시장의 대비책은.

“일찍이 유전공학 전문가인 조경현 교수와 협력해 왔고 국내 최초 HDL 연구소를 설립했다. HDL 수치뿐 아니라, 입자 모양, 입자 크기를 확인하는 등 HDL 관련 연구개발을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일무이한 원료인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HDL 품질과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 등을 통해 꾸준히 내놓았고 이밖에 쿠바 천연물을 활용해 연구 폭을 넓히고 있다. 항산화, 항염증 등 만성질환을 비롯해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적용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몇 번의 전환점을 맞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하게 됐지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고 싶었던 만큼 HDL 분야 연구에 끊임없이 투자하겠다.”

-건강 비결이 있다면.

“건강도 공부로 얻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혈액 순환과 신선 대사는 건강한 혈류와 뇌를 만들고 훌륭한 생각을 하게 해준다. 결국 건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끊임 없는 배움이 건강과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멕시코와 대결, 경쟁력 다시 볼 기회”
▲이정후, MLB 통산 10호 홈런+기습번트…3안타 2타점 2득점 활약
/사진 뉴스시스

▲‘남극대륙 단독 횡단’ 김영미 대장, 제24회 대한민국 산악대상
▲장소희, 제주공항렌트카 KPGA 드림투어 14차전 우승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7일 개최…키움·NC·한화 순 지명
▲남자배구 대표팀, 필리핀서 실전 경기력 끌어올리기 주력